

2019
Vol. 5

ISSUE & FOCUS

Regional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전국연구개발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ISSUE & FOCUS

Regional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전국연구개발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전국연구지원단 협의회 3기 회장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전국연구개발지원단 3기 협의회장을 맡게 된 (재)부산산업과학 혁신원 김병진입니다. [전국연구개발지원단 ISSUE&FOCUS] 5호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림을 너그럽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지역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주도의 R&D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지역R&D 전담추진기구입니다. 지역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혁신의 씨앗을 심어가는 중요한 기능을 부여받아 탄생했습니다.

최근 지방소멸과 혁신역량의 불균형 등 지역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수도권·비수도권의 대립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가지는 고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혁신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그에 기반해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시킬 수 있다면 지역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의 연구개발 현장에서 긴 시간 고민하고, 혁신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던 우리 연구개발지원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연구개발지원단 ISSUE&FOCUS]는 17개 시·도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지원단의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유익한 메신저라 생각합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이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가는 혁신기구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김 병 진 원장

CONTENTS

04

연구개발지원단 NEWS

- I.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 II.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 III. R&D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
- IV. 보고서 발간소식

31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 I.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 II.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50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광주광역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효율화

06

06

R&D 성공사례

지역주도의 산·학 협력 R&D 사업
교육부 벤치마킹으로 국책사업화

53

02

지역과학기술 COLUMN

연구개발지원단 릴레이 인터뷰

2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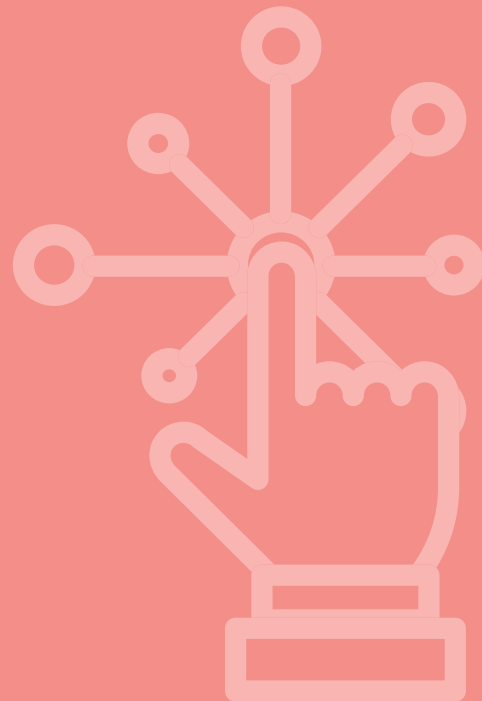
전국연구개발지원단 공동활동

28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광주광역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효율화

- I. 서론
- II.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 동향
- III. 광주지역 R&D 추진실적 및 성과
- IV. 광주지역 혁신클러스터 효율화 방안
- V. 주요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 VI. 참고문헌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광주광역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효율화

광주연구개발지원단 나숙현, 이다녕

『혁신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

정의 특정 분야의 수평 혹은 수직적으로 관련된 기업과 기관(대학, 연구소, 지자체)들이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서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시적으로 혁신이 일어나는 체제를 갖춘 지리적 공간

개념 지리적 집중,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존재, 특정 분야에의 특화, 기업과 기관의 연계, 혁신에 대한 강조

I. 서론

국가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혁신클러스터는 지역중심적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의 주요 도구로 주목받고 있음

- 20년 전, M. Porter가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제안한 이래 오늘날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 또한, 세계 각국과 지역에서 클러스터 개념을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에 도입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둠

클러스터는 단순히 인프라를 구축하는 ‘집적’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조직들 간의 지식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

- 혁신클러스터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형성배경, 집적규모, 산업 등 각각의 혁신클러스터에 맞는 분석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클러스터 운영기관은 중앙부처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로 인해서 혁신클러스터 운영조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사업에 의존

본고는 광주지역의 클러스터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의 수준을 진단하고 혁신클러스터 효율화를 위한 향후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II.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 동향

■ 1990년대 후반 이후에 R&D를 중심으로 한 광특회계내 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역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고 기술혁신의 저변이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

- 산업정책과 지역발전정책으로 상충된 정책기조를 조화하고, 산업육성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클러스터 기반 정책 도입
- 과학기술부의 RRC(1995년), 산업자원부의 TIC(1995년), TP(1999년), 지역특화센터(1999년),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소프트타운,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클러스터, 멀티미디어센터 등 클러스터를 촉진하는 역할 수행

■ 2004년 참여정부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은 단순 투입 위주의 성장을 보완하고자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거점별 산·학·연 등이 집적화된 연구개발주도형 혁신클러스터를 조성

※ 실리콘밸리(미국), 시스타(스웨덴), 울루(핀란드), 중관촌(중국) 등

- 국정과제보고('04.6) 이후 '혁신클러스터 추진위원회 개최('05.1)' 등을 통해 세부실행계획 확정하여 산업별 접근방식에서 클러스터 접근방식으로 전환
- ※ 7개 시범단지: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 국정과제보고('04.6) 이후 '혁신클러스터 추진위원회 개최('05.1)' 등을 통해 세부실행

■ 2007년 7월 생산기능과 연구기능이 결합된 7개 시범단지별 전략업종에 따라 42개 미니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기업애로 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 성과확산을 위해 5개 산업단지 추가(2007년)로 지정(남동, 명지녹산, 성서, 대불, 오창)

■ 2008년 이후 광역경제권 육성정책에 따라 '산업단지광역클러스터 구축전략'이 추진되면서 그간의 클러스터사업 성과를 통해 전국의 산업단지를 상호연계하는 5+2로 광역경제권 체계로 확대 개편

-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단지규모와 업종별 연계도 등에 따라 25개 거점단지와 168개 연계단지로 선정한 후 5+2 광역경제권별로 거점-연계(Hub-Spoke)형 산업클러스터를 구축

■ 지역혁신클러스터 등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혁신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조성하여 창업에서부터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까지 R&D 전주기적으로 밀착 지원하는 기업 지원 체계는 구축하고 있으나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어 지역 차원의 통합적 관점을 고려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

■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및 클러스터 육성 시책은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부문별(Sector-based)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어 비효율성은 물론 문제점을 야기

- 현 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의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5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거점 효율화와 함께 지역혁신클러스터의 효율화를 중요한 이슈로 제시
-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지역 내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III. 광주지역 R&D 추진실적 및 성과

1. 산·학·연 R&D 주요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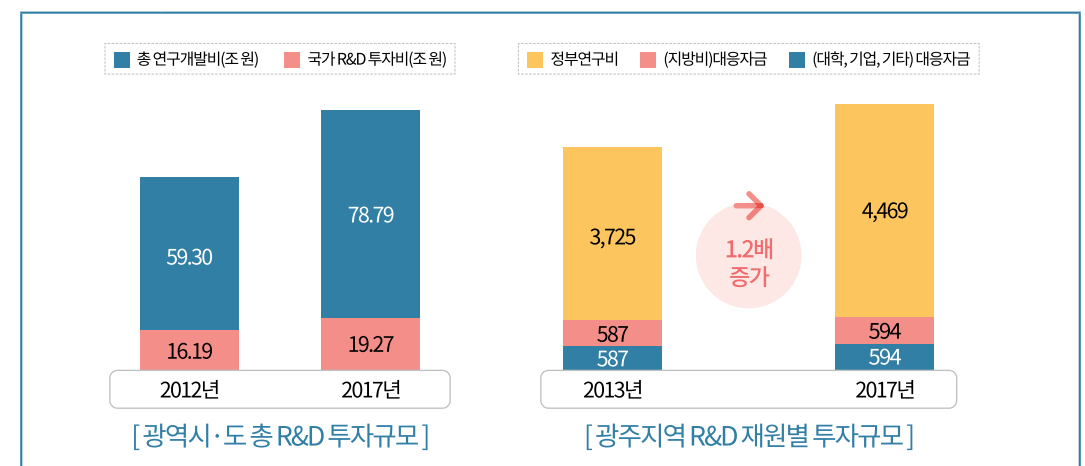
■ 2017년 총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9조 3,837억 원(13.7%▲) 증가한 78조 7,892억 원으로 OECD 국가 중 세계 5위

- 국내 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전년대비 0.32% 상승한 4.55%로 세계 1위 수준

■ 17개 광역시도별 총연구개발비는 9,332억 원 증가한 19조 2,687억 원이며 이 중 광주 지역에 투자되는 비중은 2.3%로 4,469억 원으로 집계됨

- 재원별 투자규모는 정부 83.9%, 지방비 4.9%, 민간부문의 비중이 11.2%로 정부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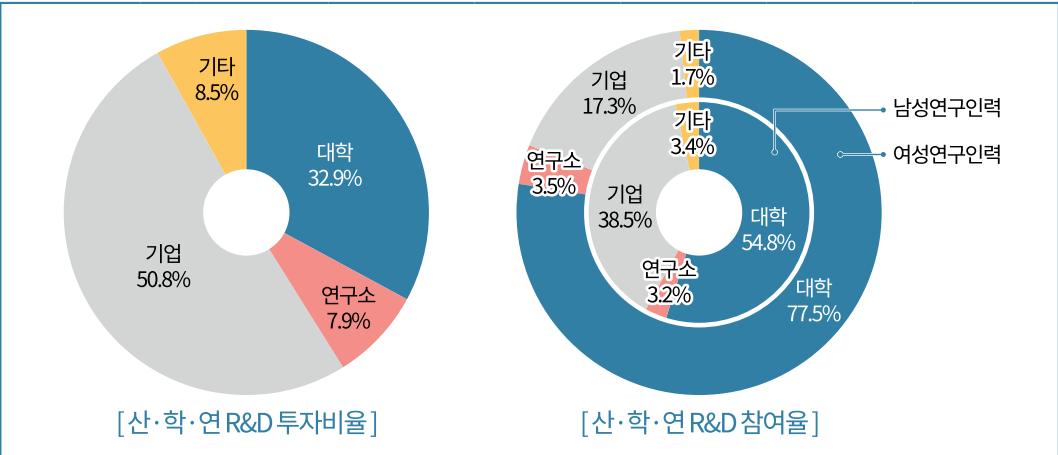
그림 1 R&D 투자현황



■ 광주시 전체 R&D 지원과제 중 산·학·연 투자율을 살펴본 결과 참여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에 투자되는 비중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광주지역 산·학·연 R&D 연구원 수는 전국 624,910명 중 2.1%의 비중을 차지
- 대학이 8,115명(전국의 4.36%)로 가장 많았고, 기업이 4,256명(전국의 1.1%), 공공연구소 827명(전국의 1.49%) 순
- ※ 광주시의 여성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원 수는 17개 광역시·도 중 11위 수준

그림 2 산·학·연 R&D 투자율 및 참여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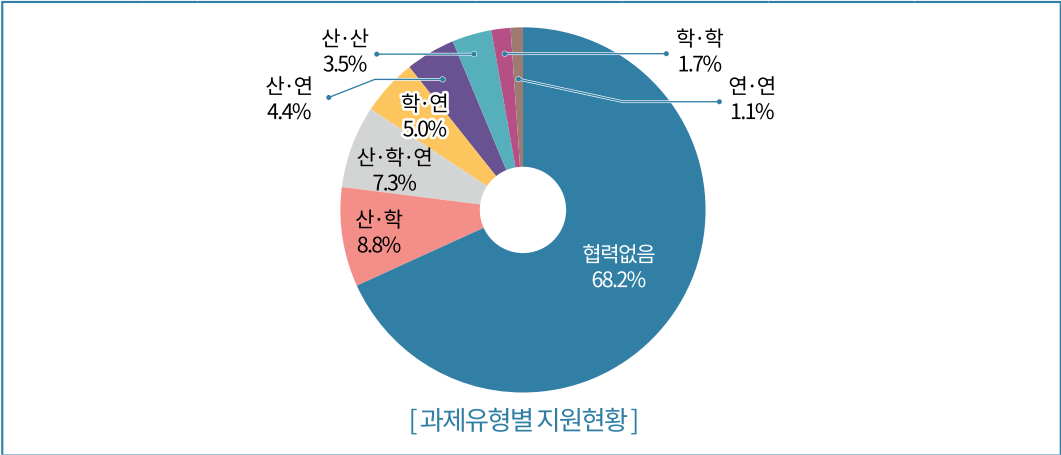


구분(2016년 기준)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소계
연구개발비 (억 원)	국비	274.4	659	424	702	835.3
	%	32.9	7.9	50.8	8.5	100.0
연구인력(인)	남성	5,105	302	3,586	321	9,314
	여성	3,010	137	670	67	3,884

■ 광주지역 R&D 지원과제 대비 산·학·연 컨소시엄 과제는 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연구비 투자비율은 31.8% 차지

-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공유하여 공통적인 사업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최대화
- 산·학·연 네트워크 교류활동을 통해 산업체 기술수요, 애로사항 파악 등 맞춤형 산업체 지원사업 확대

그림 3 R&D 과제수행 유형별 컨소시엄 현황



구분(2016년 기준)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소계
연구개발비 (억 원)	국비	274.4	659	424	702	835.3
	%	32.9	7.9	50.8	8.5	100.0
연구인력(인)	남성	5,105	302	3,586	321	9,314
	여성	3,010	137	670	67	3,884

2. 산·학·연 R&D 주요성과 및 사업 효과

■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지식의 창출과 활용조사를 나타내는 산·학·연 협력항목은 1.120점으로 전년대비 6위 상승한 전국 순위 3위를 차지

- 산·학·연·관 지역 혁신주체들과의 네트워킹 및 소통을 통해 점차 대기업 등의 선도기업이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
- 과학기술경쟁력과 혁신역량지표는 꾸준히 상승하여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발표 수는 광주가 0.089편으로 가장 많아 전국 1위 차지
- 산·학·연 협력 R&D 특허의 질적 수준은 민간 R&D와 유사한 수준이며, 연구원 1인당 특허등록 수는 0.0214건으로 전국 7위 차지

광주광역시 산·학·연 협력 현황

구분	산·학·연 협력 항목지수	상대 수준(%)	SCI 논문 수(편)	국내특허등록(건)	전국순위
1인당 산·학·연 협력	1.120점(2점)	81.3	0.089	0.0214	3

※ 자료: 2018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보고서(KISTEP)

■ '16년도 광주시의 논문 성과는 1,334건으로 전국 대비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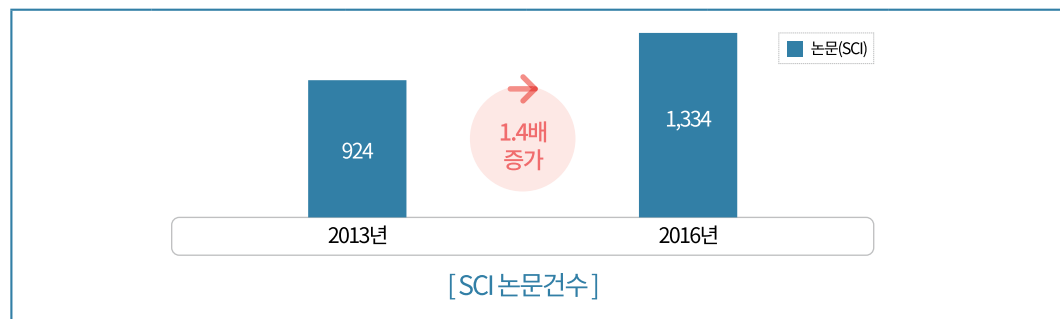
※ '16년 광주시 논문 성과수준은 17개 광역시·도 중 6위 수준으로 상위권

- 광주시 성과인정 특허등록은 최근 '15년에 하락세에서 '16년에는 소폭 상승세를 보임, 성과인정 특허 출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0.5%로 급증

※ '16년 광주시 특허등록 및 출원은 17개 광역시·도 중 각각 8위와 9위로 중위권

- 광주 내 혁신주체들 간의 단순히 MOU 체결관계 수준의 협력이 아닌 정기적 교류를 위한 연계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성과를 창출

그림 4 광주지역 R&D 주요성과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SCI논문(편)	924	1,255	1,346	1,334	13.2
증감률(%)	-	35.8	7.3	-0.9	

[과제당 특허출원등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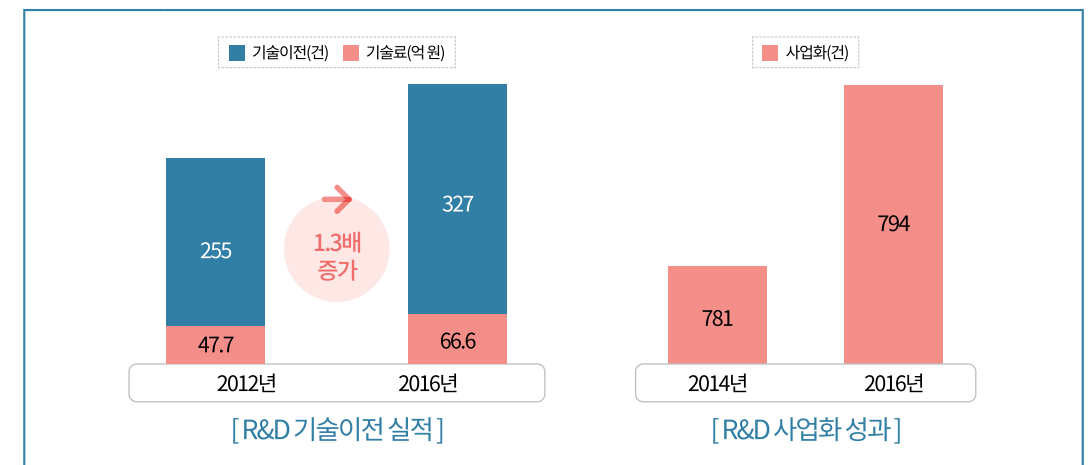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특허등록	457	411	456	3.0
특허출원	640	724	930	20.5
특허 출원대비 등록건수	0.71	0.57	0.49	

■ 기술료는 전년대비 소폭(0.2억 원) 감소하였지만 전국대비 비중은 0.4% 증가

※ 기술료 징수액: ('12) 47.7억 원 → ('16) 66.6억 원 증가

- 사업화 성과건수는 794건으로 전년대비 27% 증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0.8%

그림 5 광주지역 기술료 및 사업화 성과



■ '18년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의 평균은 9.095점이며, 광주는 전년대비 1위 상승한 5위로 9.041점, R-COSTII의 상대수준 평균은 53.8%

※ 지역 과학기술역량평가 지표: 과학기술역량의 제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간결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와 자료 체계

- 광주지역은 환경(과학기술활동 활성화 요인, 3위)과 네트워크(지식의 흐름·기술확산, 3위)부문은 상대적으로 강점인 반면, 성과부문은 평균수준이며, 자원(과학기술활동 주체인 인적자원·지식자원, 9위), 활동(지식을 창출하고 활용·창업활동, 9위) 부문은 미흡



■ **지방과학연구단지(SP):**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와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2006년 5월 부터 전국 13개 산업단지 중 연구개발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10개 ‘지방 과학연구단지’가 공모·선정(광주, 전북, 충북, 강원, 부산, 대구, 전남, 경북, 경남, 울산)

- R&D 사업 지원을 포함하다는 측면에서 산업기술단지(TP)와 차별성 존재

구분	지정목적	지정연도	면적(k㎡)	위치	특화분야
첨단과학 산업단지	연구개발거점 역할 수행 및 지역과학 기술혁신	2006. 05	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광산업, 단부품소재산업, 금형산업

■ **산업기술단지(TP):** 1997년 6개, 2000년 이후 9개 테크노파크 추가 지정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 테크노파크를 포함하여 전국 18개의 테크노파크 지정

- 산·학·연 등의 인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를 사업화 촉진 하며, 상호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절차 제6조

구분	지정목적	지정연도	면적(k㎡)	위치	특화분야
첨단과학 산업단지	산·학·연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1998. 12	99	광주 북구 대촌동 958-3	LED, LD, 광통신, 광응용, 정보가전부품

■ **미니클러스터(산·학·연 협의체):**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 협의체를 의미

- 업종별, 기술별로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관계자와 함께 참여하여 포럼, 협의회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하는 소규모 협의체

※ (2004.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7대중점추진과제로 선정, 2005년 4월부터 7개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산업단지 대상으로 확대

- 광주지역의 미니클러스터(광통신·광융합·스마트전자·자동차융합·의료부품소재) 운영은 특허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공동기술개발 등을 전문가와 연계하여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지원

4. 광주지역 혁신클러스터 분석 결과

가) 클러스터 구조

■ **광주광역시 혁신클러스터 활동(공식/비공식)의 참여조직은 대학, 기업 연구소등 4,164개 내외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광주테크파크가 가장 많은 참여조직과 연계되어 추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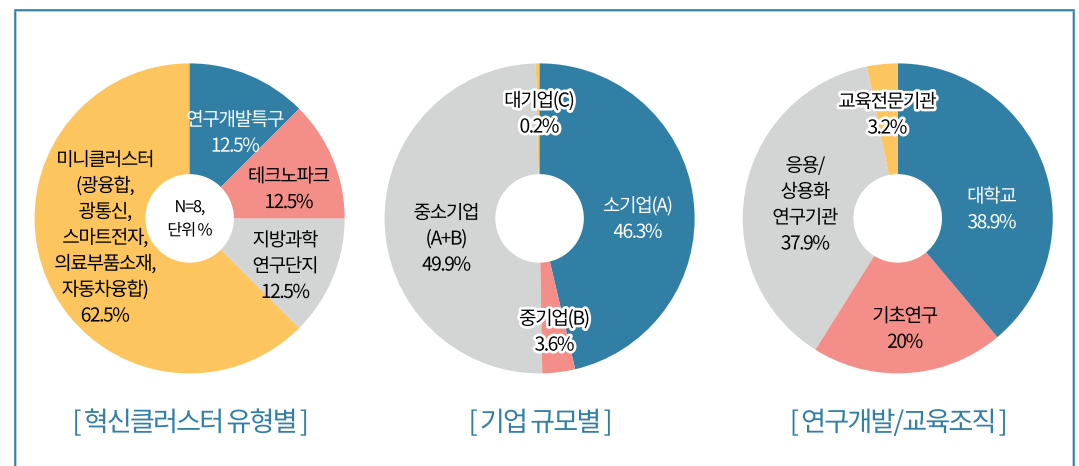
- 광주지역의 8개 혁신클러스터가 비슷한 수준으로 연구개발/교육혁신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대학교 38.9%, 응용/상용화 연구기관 37.9%, 기초연구기관 20.0%, 교육전문기관 3.2% 순으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광주지역은 대부분 중소기업 49.9%와 소기업 46.3% 중심으로 90% 이상이 8개 혁신클러스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본 분석 결과는 기업을 중심으로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클러스터에서 의도하는 집적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활동을 필요해 보임

- 이를 위해, 클러스터 관리 운영 기관들은 주로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마케팅과 홍보 서비스 제공하고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한 협력 활동 및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광주광역시 혁신클러스터 구조



■ 클러스터 목표 달성을 위해 분기별 한번 이상 혁신클러스터 전략을 검토 및 점검 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측정체계(KPI)는 월 1회 또는 분기별 한번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클러스터 거버넌스 체계 및 협력관계

- 혁신클러스터 관리 운영기간은 적게는 6년 길게는 19년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정규직 직원 채용은 계약포함 연간 1~3명, 혁신클러스터 운영직원은 공통적으로 관련업무경력과 전문학사 학위 이상,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어구사능력, 제2외국어 능력, 클러스터 및 관련업무 교육이수 경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클러스터 내부 관리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측면에서 이사회, 운영위원회, 클러스터 기타회의등의 운영실적은 광주연구개발특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집계
- 혁신클러스터 관리 지원기관 간, 지원기관·산업체 등의 각 사업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교류회 구축 및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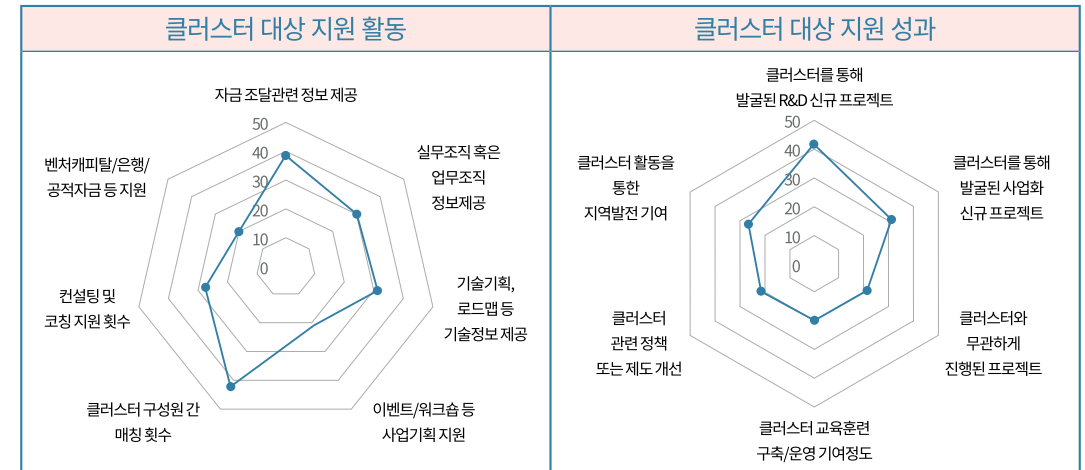
다) 클러스터 운영예산

- 클러스터 관리운영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안)은 8개 클러스터 중 의료부품소재를 제외하고 모두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음
 - 혁신클러스터의 주요 재원 조달경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는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테크노파크와 광주과학연구단지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됨
 - 미니클러스터의 경우 전액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는 미흡

라) 클러스터 대상지원 활동

- 클러스터 구성원의 '혁신역량강화' 및 '사업기획탐색', '기업가정신육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음. 그 중 클러스터 구성원 간의 매칭횟수, 자금조달관련 정보제공이 가장 높았음
 - 그에 따른 결과로 발굴된 R&D 과제가 41건, 사업화 31건, 클러스터 교육훈련 구축 및 운영기여도 19회로 나타났음
 - 클러스터 성과달성은 전체적으로 높았으나 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향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그림 9 광주광역시 혁신클러스터 지원활동 및 성과



-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사업만족 조사는 미니클러스터 광통신을 제외하고 매년 1~5회 정도 실시되고 있으며, 사업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참여기업들의 사업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사업방향의 다변화를 통해 사업의 지원폭을 확대함으로써 성과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광주지역 혁신클러스터 효율화 방안

- 지역혁신클러스터는 공간적 개념으로 지리적 집중체로서 혁신자원과 인적자원, 인프라 등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 간, 업종 간의 기술 및 인력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혁신클러스터 관리 지원기관 간, 지원기관과 산업체 간 등의 각 사업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교류회 구축 및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클러스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내 기관들의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산업체 애로사항(연구개발, 기술이전사업/마케팅)등을 청취하고, 역할별/분야별 그룹모임에 해결방안 도출
 - 상호 네트워킹 및 신기술정보공유, 추진사업관련 등 공동사업 발굴을 통한 과제 제안 등 필요
 - 공동사업추진모델구축 → 시범사업추진 → 시범사업평가 및 환류

■ 클러스터의 장기적으로 발전가능한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후 지자체 또는 민간 재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도형 클러스터로 전환 필요

- 미니클러스터의 경우 전액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는 미흡하므로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지원을 통해 자생적 발전 도모
- 또한, 지원분야는 모두 다르지만, 중복/유사 사업(창업 인큐베이팅 등)들이 많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유사사업들을 묶을 수 있는 사업지원 범위를 확대

V. 주요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클러스터기관마다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분야의 장점을 서로 접목시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혁신정책들을 조정하고 혁신클러스터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식의 생산과 활용의 관리구조를 구축

- 혁신클러스터 관점에서 지방과학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① 연구기반 강화, ②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③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확산을 통해 관련분야 전문인력양성, ④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실증, 국내·외 판로, 마케팅 지원 등 클러스터 기반의 혁신사업의 지원확대 등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한 구성요소로 추진체계 확립

■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미래형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활동을 위한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 산·학·연 공동으로 ‘제품기획 - R&D - 생산 - 판매’의 협력 모델을 구축 및 확산하는 미니클러스터를 조성
- 특히 자동차산업 등의 가공조립형 공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를 뒷받침하는 기반기술의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선도적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업 간 기술 및 인력 등을 보급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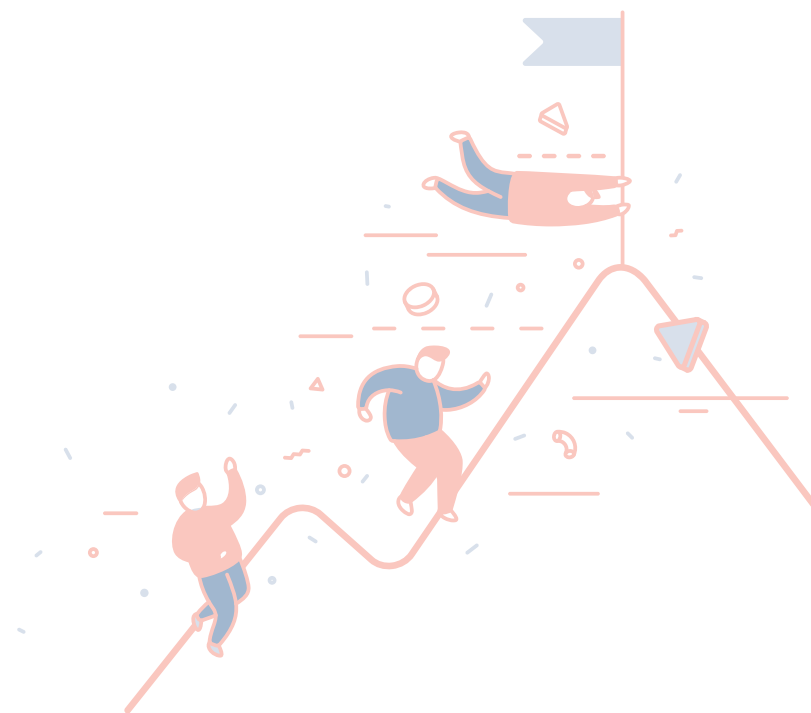
■ 산업별 개방형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를 확산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신속하게 적응

- ※ 미국 실리콘밸리는 정부주도의 인위성이 배제된 자생적인 기술창업
- 광주는 R&D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 높은 수준의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인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우수
- 광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하고 혁신도시 조성과 한전 이전에 따른 지식 데이터산업, 소재부품, 나노 등 융복합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산업 발전 가능성이 증대

- 앞으로 조성될 인공지능 기반 창업단지는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의 집적화를 통해 클러스터내 기업 간 네트워킹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이중 분야 산·학·연 및 R&D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스타트업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문화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지역에 분산된 기업 혁신기관 간 업무 조정 및 연계를 통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고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산·학·연 및 기업 중심의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

■ 클러스터 구성기관의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정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R&D를 추진하여 기업 중심의 R&D 기획·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

-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사업 추진을 벗어나 지자체 중심의 지역산업 활성화 추진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클러스터 내 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지자체 중심 상향식 산업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R&D 사업에 대한 수요지향, 사업 간 연계, 사업 실효성과 적기성 등을 감안한 지역과학기술진흥정책의 대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구상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혁신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할 것임



VI. 참고문헌

- Cooke, P.,(1992), “Regional Innovation System : competitive regulation in the new Europe”, Geoforum
- 배응환(2015), “혁신의 제도적 접근: 지역혁신체지와 혁신클러스터의 지식파급효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Port, M.,(1998), “On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권오혁(2017), “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 범위” 대한지리학회지
- 박소유(2010),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통한 경제 성장 전략” 산업기술 정책동향 브리프
- 정지상 등(2007), “균형발전 정책교본-혁신클러스터”, 균형발전위원회
- 이원일(2012),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분석 연구: 광교테크노밸리 산·학 협력 분석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임종빈(2012),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 강혜정(2012), “지역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최근 동향 및 이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윤지호(2008), “클러스터 정책의 이론, 쟁점 및 사례검토”, 한국산업기술재단(KOTEF)
- KIAT(2010), “미국의 번영을 위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
- 광주연구개발지원단(2018), “2017년도 광주광역시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 광주연구개발지원단(2018), “2018년도 광주광역시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보고서”
-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2018), “2018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 가이드북”
- 김성진(2018), “2017년 지역 R&D 실태조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2018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보고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02 지역과학기술 COLUMN

연구개발지원단 릴레이 인터뷰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세종연구개발지원단



02 지역과학기술 COLUMN



Q 단장님 인사말 및 연지단 소개

A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산업·경제 도시 울산의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지원단장 이유동입니다. 울산 연구개발지원단은 2014년에 시작하여 6년째 지역 과학기술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지방정부의 지역주도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시범 연구개발지원단으로 선정되어 신지방과학기술진흥 실천과제 기획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요즘 울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 현안은 무엇인가요?

A 최근 울산에서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과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으로 전통 제조업과 신기술·신산업과의 융복합화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도시로서 뛰어난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체계적 네트워킹을 통한 신기술·신산업과 전통 제조업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글로벌 중화학 공업의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Q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지단의 구체적인 역할

A 연구개발지원단의 근본적인 역할은 조사, 분석, 기획, 평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산·학·연·관)의 연구개발 연계, 협력 증진에 더하여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주도형 연구개발 추진체계 확립으로 지방과학기술 핵심역량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가치,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현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원활한 연구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중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요즘 강조되고 있는 '지역주도' 연구개발 기획의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행과제는 무엇인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A 몇몇 지역의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주도'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문제로 중앙-지역 간 사업비 매칭 중심의 운영에 의해 지역 주도 연구개발 사업의 자율적인 기획·관리에 있어 제한적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서 각 지역의 혁신역량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높은 중앙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지역 자체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유연한 사업 매칭비 정책 수립, 연구개발 예산의 적절한 배분 등을 선행과제로 지정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지원단의 포부를 이야기해주세요.

A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온 울산의 연구개발지원단이자 시범 연구개발지원단으로서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 자체 역량 강화를 성취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 정책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며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조사·분석 기능 강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지원단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연구개발지원단은 산·학·연·관의 컨트롤타워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역혁신주체들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여 혁신체계 고도화를 달성해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단장님 인사말 및 연구개발지원단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세종연구개발지원단장 조병설입니다. 국가 계획도시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연기군을 중심으로 공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를 흡수하여,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였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지역 과학기술혁신 거점 부재에 따라 저희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은 2016년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지역연구개발지원단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지난 8월 새롭게 출범한 (재)세종테크노파크로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을 이관하여 조직개편 및 전담인력 재배치를 통해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거점역할 수행하는 연구개발지원단의 위상 재정립 및 지역 과학기술 구조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지역주도 R&D를 위한 우리지역 연구개발지원단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은 기존의 한시조직이었던 세종지역산업기획단의 한계를 넘어 (재)세종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과학기술 및 R&D 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선발 연구개발지원단의 수범사례를 기반으로 우리시에 특화된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진흥 및 R&D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연구개발지원단 고유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 내재화를 위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세종시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과 R&D 체계 개선을 위해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중앙 및 지자체 간 협업과 연계의 주체가 되고, 지역은 물론 초광역 혁신자원과의 연계·협력 확산 주도를 위해 사업수행 초기단계에 있는 △지역 과학기술 정책수립 지원, △R&D 현황 및 자원 조사·분석, △지역주도형 R&D 과제 기획,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정보제공,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확대하여 지역주도 R&D 전후방을 지원하는 전주기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우리지역에서 요즘 가장 부각되고 있는 R&D 이슈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지원단의 노력을 듣고 싶습니다.

A 우리시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민선3기 핵심시책을 스마트시티 및 자율주행산업육성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범부처 시범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국토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스마트시티), △산업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자율주행 서비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자율주행 실증)가 연달아 지정됨에 따라 관련 R&D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은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관련 R&D 과제 기획 및 지원을 통해 약 12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작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조직구성원이 하나되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연구개발지원단이 지역 R&D 전담기구로서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A 최근 정부는 지역분권 시대를 대비하여, 중앙과 17개 시·도 정부를 아우르는 과학기술정책 소통 라인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과학기술정책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범 연구개발지원단 중심의 ‘신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4개년 실천계획’ 수립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해 지자체가 중앙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역과학기술진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R&D 사업의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 R&D 기반의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지원단이 지역 R&D 전담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R&D 전담기구 지정·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지원으로 △지역 R&D의 기획·평가·관리기능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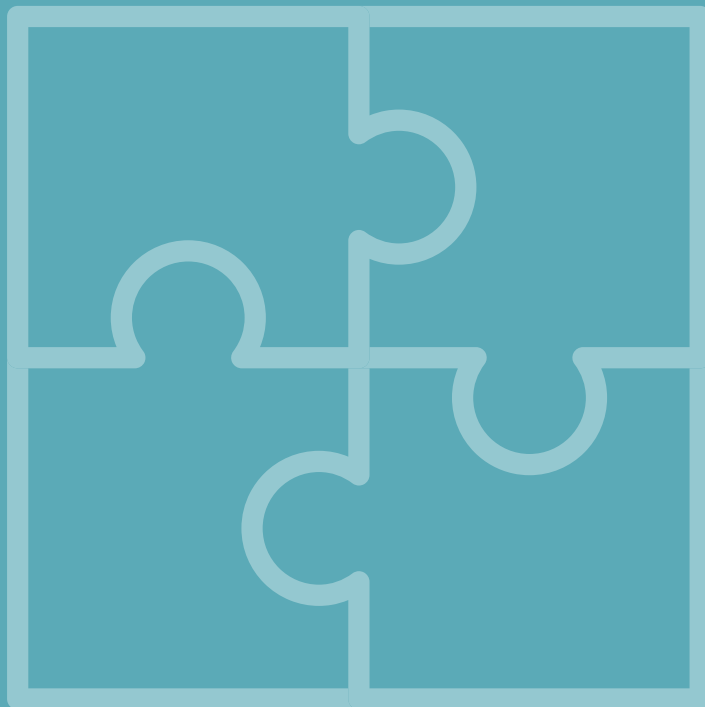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지역 R&D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지원단의 포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A 지역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의 기본 역할 및 기능에 충실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도의 기획·관리·평가, 성과의 연계·확산, 유사·중복 조정 등 지역 내 산업정책 관련 부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은 △전담인력의 기획역량 강화로, △세종시 지역 R&D의 정확한 위치진단을 통한 △지역 수요 맞춤형 R&D 사업 발굴·추진, △지역 R&D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 R&D 기반의 자생적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 R&D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국 막내 연구개발지원단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03

전국연구개발지원단 공동활동



03 전국연구개발지원단 공동활동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3기 회장단 출범 및 제1차 회장단 회의 개최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3기 회장단이 지난 7월 1일 출범하였다. 3기 회장단은 회장 지역인 부산, 부회장 지역인 강원, 경북, 광주, 감사 지역인 전남으로 구성되어 임기 2년간 연구개발지원단 공동·협력사업 발굴, 지역 R&D 이슈 발굴, 연지단 성과 공유·확산 등의 협의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3기 회장단은 지난 8월 7일 첫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 회의 정례화, 연구개발 지원단의 역할 및 위상 제고 방안, 공동사업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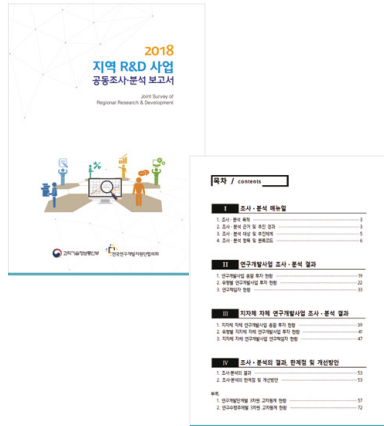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단장 워크숍 개최



전국연구개발지원단(이하 전국연지단)협의회는 지난 8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서 '2019년 전국연구개발지원단 단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17개 전국연지단 단장 및 실무자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워크숍 1일차에는 KISTEP 및 기술혁신학회와 연계한 「제3회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과학기술혁신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워크숍 2일차에는 KISTEP-전국연지단 단장 조찬간담회, 지역 벤치마킹 사례 '부산시 R&D 예산 배분·조정' 소개,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지원단의 역할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8년 지역 R&D 사업 공동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에서는 전국연구개발지원단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지역 내 국비, 국비매칭 연구개발사업(과제), 연구개발과제 지원 성격의 지자체 자체 연구개발사업(과제)의 투자 현황에 대한 「2018년 지역 R&D 사업 공동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7년도 전국 18개 지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사업의 총투자액(국비, 지방비)은 197,146억 원으로 2016년 188,221억 원 대비 8,925억 원(4.7%) 증가하였으며, 총투자 중 국비 89.3%, 국비 매칭 10.3%, 지자체 자체 0.4%의 투자 비중으로 지자체 자체 사업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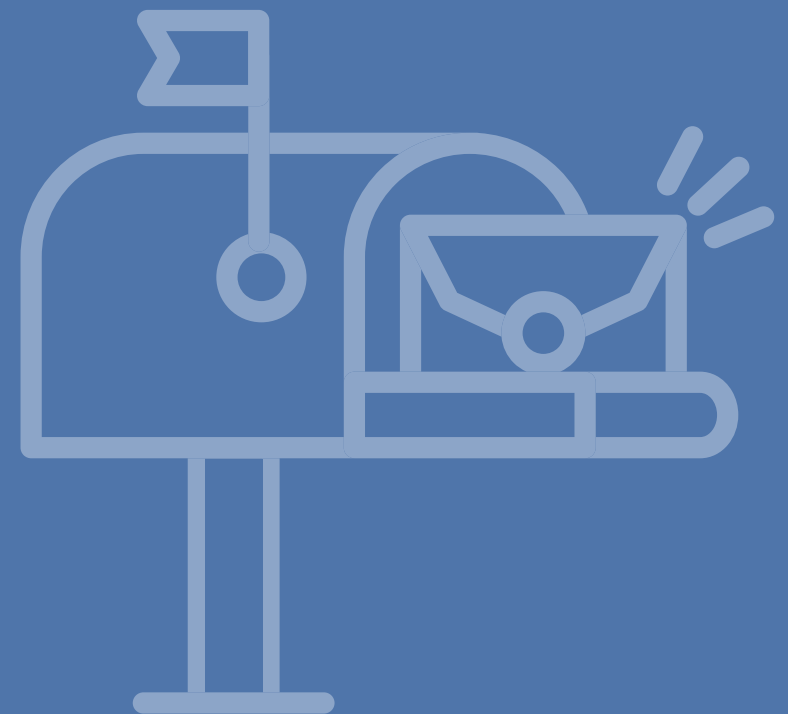
지자체 자체 사업은 응용연구(48.1%)와 산업분야(88.6%)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미래유망신기술에서는 BT (20.7%)와 IT(15.9%)분야의 비중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에서는 매년 지역 R&D 사업 공동조사·분석을 통해 지역 R&D 정책수립, R&D 지원, 성과평가 등 R&D 사업 전주기 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조사·분석 전문성 강화 및 자료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분석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04 연구개발지원단 NEWS

- I.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 II.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 III. R&D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
- IV. 보고서 발간소식



04 연구개발지원단 NEWS



I.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부산연구개발지원단

2020년도 부산시 R&D사업 예산배분조정 착수



부산시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2020년도 부산시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을 착수하였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1,000억 원 규모의 부산시 연구개발 예산을 심도있게 배분·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신산업 △주력제조산업 △해양·클린테크산업 △라이프케어산업 △기반지원의 5개 분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총 38명의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2주에 걸쳐 심층검토를 수행하였다.

전문위원회는 '2020년도 부산 혁신사업 투자방향(2019년 6월)'과 '2019 연구개발 사업 성과평가(2019년 5~7월)' 등 부산시의 정책사항을 근거로 각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 규모,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총 95개 사에 대해 각각 △투자확대 △유지 △축소 등 검토 의견을 도출, 제시하였다.

부산시는 향후 부산과학기술진흥위원회와 R&D 예산심의 위원회를 통해 전문위원회에서 도출한 배분조정(안)을 의결하고, 차년도 예산 투자액을 확정하게 된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도 과학기술혁신연구회 자문회의 개최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6월~7월, 경기도의 혁신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과학기술혁신 연구회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도내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으며, 지난 자문회의에서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차별성, 지원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연구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인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는 인천 연구개발 활성화 및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4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Idea Space실에서 「인천광역시 R&D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주도의 연구개발(R&D)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지자체 R&D 예산 편성과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한 선순환체계 구축 등 산·학·연 등 연구개발 관계기관 간의 연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과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산·학·연 연계 R&D 사업 기획 세미나 개최



목적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체계 이해 및 R&D 사업의 효과적인 수주방안 모색: R&D 사업 수행 주체들 간 업무 교류와 신사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내용

- 강연: R&D기획을 위한 국가예산편성 제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류성욱 실장)
- 연구개발사업 반영을 위한 국가 R&D 예산 편성 제도 및 국회 예산 심사 및 배분 절차
- 지역 R&D 사업 수주를 위한 기획방법 및 사례 중심 강연
- 발표: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4인 진행 연구 발표
- 에너지공학과 최수석 교수의 '플라즈마 진단 및 응용에 관한 연구' 및 천치연(식품생명공학과)·이효민(생명화학공학전공)·김호민(전기공학전공) 교수의 진행 연구 발표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세종 과학기술 정책 간담회 개최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과학기술정책 발굴을 위해 과학기술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소재 대학 협력단장과 세종시 과학기술담당 등이 참석하였으며, 대덕 연구개발특구 확대 정책제안 및 방안, 세종지역 강소특구 지정, 과학벨트 기능지구 후속사업 발굴, 연구장비기업 종합지원센터 유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 중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기획 과제로 지정하여 연구개발지원단에서 정책기획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2019년도 제3차 비철소재 산업 활성화 협의회 개최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강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을 위해 중점유치 업종인 비철금속, 첨단소재 부품 분야 지역 내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회장단으로 강원도, 대학, 혁신 기관들로 구성하여 실무 협의단을 구성하여 4월부터 첫 출범을 시작하였다.

제3차 비철소재 산업 활성화를 6.26 (수) 진흥원 회의실 개최를 통해 강릉시와 현재 추진중인 비철소재 기업유치 추진현황 및 비철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화를 논의 하였다. 추후 관련 사업 공유 및 사업 발굴, 협의회 운영을 위한 역할 분담, 대규모 부처사업 협력사항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제조업 르네상스 기술자립 네트워크 -대일 무역역조 개선 지역 R&D사업(제안)-



울산연구개발지원단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책을 구체화하여,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에 우선 예산 6조 원 투입으로 기존 조사된 대일 무역역조 품목자료를 기반으로 신규 사업 제안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 자문회의를 하였다. 본 자문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역할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pilot 지원, 화확정보 지원 등 제안 내용을 울산광역시와 교감하여 정기적인 기획협의회를 통해 정책(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이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지역 기여 활성화 방안 간담회



대구연구개발지원단에서는 지역에 위치한 공공연구기관의 지역 기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혁신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지역 기여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행사는 지역 공공연구기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31명이 참석하였으며, 대구연구개발지원단에서 지원 중인 공공연구기관 연계 융복합 R&D 지원사업의 우수사례 발표 및 한국화학연구원 고영주 책임연구원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대구연구개발지원단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지역기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연구개발지원단

출연(연) 연계 기술사업화 확대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연구개발지원단은 대전시 담당 과학산업과와 함께 출연(연) 연계 맞춤형 기술사업화 확대를 위한 관련기관(대전시-출연(연)-관계기관) 간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대전시는 2019년도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추진 방향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유하고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기술사업화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위한 출연(연)의 의견수렴과 함께 기업수요조사 방법 및 신기술 이전 활성화 방안, 오픈스페이스(융합연구공간) 확대를 위한 안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출연(연)과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부분, 사업 활성화 아이디어,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광역시 제8회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개최



부산연지단은 제8회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지난 5월 23일에 개최하였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지방과학기술진흥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함께 수립한 △부산광역시 新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4개년 실천계획이 의결되었다. 이와 더불어 △민선7기 과학기술정책 추진방향, △제1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 '18년도 추진실적 및 '19년도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기본방향 등 민선7기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추진방향과 세부사업 내용을 위원회에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부산연구개발지원단

2020년도 부산 혁신사업 투자방향 수립



부산연지단은 2020년도 부산 혁신사업 투자방향을 수립하여 지난 6월에 포럼을 개최하였고, 7월 3일 부산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제15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이는 민선7기의 성공적 지역 과학기술·산업 혁신과 핵심시책의 목표달성과 예산 활용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투자방향은 민선 7기 2020년 연구개발 투자목표로 '부산 경제재건' 및 '시민행복 구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분야 9대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2020년도 부산시 R&D 예산 배분·조성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충남연구개발지원단(충남테크노파크)

2019년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제1차 운영위원회



충남연구개발지원단은 연구개발지원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과학기술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전문가들과 함께 2019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운영위원들은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의 다양한 세부과제 결과물들의 성과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성과 함께 新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4개년 실천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II.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2차, 제3차 산·학·연 연계 기획협의회 개최



제2차

목적 중앙정부 및 지자체, 도 내외 산·학·연 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 R&D 기획 아이디어 도출: 지역 R&D 혁신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계 기획

내용 공동기획과제 논의 및 과제 기획을 위한 기 수요조사 결과 검토 및 기획과제 발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연계협력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R&D 사업 수요 발굴



제3차

목적 지자체 자체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신규 R&D 기획 프로세스를 찾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 진행

내용 지자체 자체 R&D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차별성 있는 신규 기획 프로세스 마련: 지속가능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해결은 물론 지역 산업의 육성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다방면의 기획 필요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세종 지역주도형 R&D 사업 및 과제 기획 발굴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은 '2019년 세종 지역주도형 R&D 사업 및 과제 기획' 과제발굴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조사는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다부처 공동사업 사전기획 연구과를 비롯한 기타 일반 R&D 과제 및 공모 사업 분야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총 11개 과제가 접수되었다. 이후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수과제 중 총 2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과제별로 기획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연구개발지원단(전북테크노파크)

2019년 전북 융복합 R&D 기획 연구그룹 지원 모집 공고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전라북도 내 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 등의 연구기관 간 연계협력 과제발굴을 활성화 하고, 연구기관과 지역기업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융복합 R&D 기획 연구그룹”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진행 하였다.

지역 내 연구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혁신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기획비용을 지원하는 이 지원사업은 △미래형 혁신성장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기타 과학기술 대형 프로젝트 등 4개 분야로 접수받아 총 3개 그룹을 선정하여 8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지역 수요맞춤형 R&D 사업 기획과제 평가위원회 개최



충북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수요맞춤형 R&D 사업 기획과제 최종 선정을 위한 2차 평가위원회를 지난 7월 24일(수)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하였다.

약 2개월간 7회 분과회의(미래산업, 태양광·신에너지, 첨단소재, ICT 융합)를 통해 최종 10개 과제가 접수되었고, 7월 10일 1차 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선순위로 선정된 8개 과제에 대한 2차 평가위원회와 충북과학기술포럼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금번 과제 선정을 통해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및 기획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충북과학기술포럼 회원들과 함께 과제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충북 과학기술 R&D 사업 확대 및 역량 강화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과학기술포럼 총회 개최



충북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5월 20일 S컨벤션에서 과학기술인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충북과학기술포럼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장섭 충청북도 정부부지사 및 변재일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원건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장 등 100여 명의 주요 내빈이 참석한 금번 행사는 2018년도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남창현 신임 회장 등 3기 임원 선출, 지역과학기술진흥에 공헌한 유공자 표창 등으로 내실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도 지역 R&D 육성계획 및 공모 사업대응 요령에 관한 강연과 충청북도 연구기획과제 발굴 및 R&D 주요 시책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장섭 정부부지사는 “우리 도의 핵심두뇌인 과학기술 포럼에서 기술 간,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대융합 시대에 앞서가는 과제발굴을 부탁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전국대비 4% 일등경제 충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과제기획 공모를 위한 분과별 분과회의를 거쳐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과제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연구개발지원단(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사회문제 해결형 R&D 수요조사 전문가 기술 검토 회의



충남연구개발지원단은 2019년 상반기 사회문제 해결형 R&D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사업에 대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 리빙랩 전문가와 함께 기술 검토 회의를 진행하였다. 분야별로 나누어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제안된 과제에 대해 추진체계, 내용, 예산,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ICT분야와 건축분야에 각각 1개의 수요조사가 선정되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와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 사업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2019년도 강원도 지역산업맞춤형 R&D 기획과제 발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강원도 지역산업맞춤형 R&D 기획과제 발굴을 통해 지역산업맞춤형 수요조사서를 총 18건 접수를 받아 총 10건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10개의 과제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과제 지원을 받아 강원권역 지역산업맞춤형 R&D 사전 기획 발굴을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을 상시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선정된 10개의 과제와 함께 6. 4 (화) 지역산업맞춤형 R&D 기획과제 첫 설명회 개최 통해 본격적인 강원도 지역산업맞춤형 신규 R&D 사업 발굴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산·학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전남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기업의 현장맞춤 수요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내 농공단지 중소기업과 지역 대학의 공동 R&D를 지원하는 ‘2019년 산·학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학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전남연구개발지원단이 주관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11.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 내 대학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공동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연구개발지원단은 전남도 내 68개 농공단지 1,200여 개의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 소외 해소 및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남연구개발지원단

과학기술기반 R&D 과제 기획위원회 지원 실시



전남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R&D 혁신역량 강화 및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기반 R&D 과제 기획위원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반 R&D 과제 기획위원회 지원은 전남연구개발지원단이 수행하는 “R&D 전담기관 운영사업”의 내역사업으로써, 전라남도 실 국, 사업본부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서를 통해 정부 및 전남의 R&D 정책과 당위성에 부합하는 기획연구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13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10개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과제당 10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10개의 기획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다. 전남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기반 R&D 과제 기획위원회 지원을 통해 지역 수요 기반의 R&D 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역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남의 미래산업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전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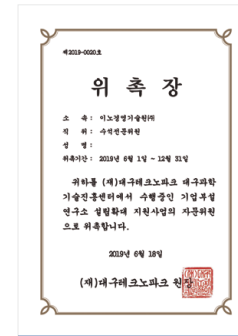
대전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수요맞춤형 R&D 기획 연구 추진



대전연구개발지원단은 사회문제 해결형 지역 수요 맞춤형 R&D 기획 연구를 위해 기술수요조사(2019. 6. 10~7. 03)를 실시하고, 검토위원회(2019. 7. 11)를 거쳐 2개의 기획과제(①미세먼지 저감 및 악취개선, ② 폐비닐류 재활용)를 선정하였다. 발굴된 2개의 과제는 기획 연구반 구성을 통해 8월 1일부터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기획 작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장중심 과제기획 보고서를 도출하여 시정반영 및 중앙공모를 위한 사전준비에 적극 활용·연계할 계획이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

2019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확대 지원사업 자문단 운영



대구연구개발지원단에서는 지역기업 R&D 역량 향상 등의 지원을 위해 2019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확대 지원사업을 착수하였다. 해당 사업의 지원기간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로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27명의 컨설팅 자문단 운영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부서의 설립을 위한 자문 및 제반절차의 진행을 지원하게 된다. 연간 7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역 내 기업이라면 올해 11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

2019년 중앙 R&D 및 정책과제 기획유치 지원사업 착수



대구연구개발지원단에서는 국가 중·대형 R&D 과제의 지역유치 및 지역 기업의 R&D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19년 중앙 R&D 및 정책과제 기획유치 지원 사업을 착수하였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Pool 및 제반 경비(최대 1천만 원)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R&D 진입 초기 단계의 기업 및 기관을 위한 지원 단계부터 중앙정부의 중·대형 정책과제 유치를 위한 단계까지 총 3개의 지원유형으로 과제기획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해당사업의 지원을 위해 올해 7월 지원대상의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연구개발지원단

2019년 부산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시행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여 간 2019년도 R&D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R&D 성과 발생주기를 고려하여 4년 이상 추진된 6개 부서의 18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점검하고 성과확산과 지역기여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하여 평가했다.

성과평가 시행결과로 총 18개 사업 중 “우수”를 받은 R&D 사업은 3개(16.7%), “양호”를 받은 R&D 사업은 13개(72.2%), “미흡”을 받은 R&D 사업은 2개(11.1%)로 확정되었으며, 평가결과는 2020년 부산시 R&D 예산 배분·조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III. R&D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소재·부품 국산화 지역 R&D 기업 간담회



울산연구개발지원단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책으로 지역 내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소재·부품 국산화 타깃 R&D 수행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7월15일(월)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종석 지원장, 울산광역시 강기중 화학소재산업과장과 산·학·연 대표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R&BD 정책 모델’, ‘대일소재부품 전략 물자 수요공급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의 주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울산연구개발지원단은 앞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무역역조 관련 지원정책 및 신규 추진 전략을 수립해갈 계획이다.

전북연구개발지원단(전북테크노파크)

2019년 전북과학기술 릴레이세미나 개최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 및 R&D 정책 동향정보 확산을 통해 도내 관련산업 정책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산·학·연·관 관계자의 기획·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전북 과학기술 릴레이세미나를 5월, 6월, 7월에 걸쳐 3차례 전북과학기술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제는 「수소전기차 개발동향 및 향후 전망, 그리고 상용차」, 「블록체인 기술동향 및 발전 방향」, 「홀로그래프 기술 및 산업동향」 등으로 강훈중 센터장(전자부품 연구원), 김순태 교수(전북대학교), 구영모 선임(자동차부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을 강사로 모셔 전북도 내 산·학·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현안 이슈들을 반영한 세미나를 준비하여 전북도 내 R&D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정보시스템(GJTIS) 2차 고도화 구축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은 2018년 10월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R&D 과제에 대한 통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여 지역 과학기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과제현황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도화 구축의 주요내용은 먼저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 간의 연동기반을 마련하고 시스템의 검색엔진 탑재를 통하여 유관기관 및 정부부처의 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하고 변화하는 R&D 현황에 즉각 대응방안 마련 및 광주광역시 지역 내 스마트 R&D 전광판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스템의 고도화는 7월을 기점으로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작업기간 산정회의,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8월에 용역착수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에 구축완료 예정이다.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식 개최



7월31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경남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3개시 지자체장(허성무 창원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현명 김해부시장)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에서 경남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다.

경남도는 창원, 진주, 김해 3개 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을 통해 2024년까지 270여 개 기업 유치, 1천 99명 고용 창출, 901억 원 매출 증대 등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생산유발효과 1조 4천 446억 원, 고용유발효과 7천 123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

2019년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설명회 개최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7월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참여율과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는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R&D 조사·분석 성과 및 자료입력 방법 시연, △과학기술통계와 경기도 과학기술정보서비스(GTIS) 활용법,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조사·분석 사업대상은 총 122개로, 경기도와 도 사업소, 공공기관 등 46개 기관이 해당된다. 경기연지단은 총괄적인 조사·분석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실시



대구연구개발지원단에서는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공유·확산과 부진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성과평가는 대구시 과학기술 진흥조례와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2017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량평가와 상·하위 사업 현장평가, 심의평가로 진행되었으며,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와 만족도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였다.

특히, 성과 검증·확인을 위한 현장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컨설팅을 위한 심의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성과평가 결과 상위사업은 성과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지역 대학, 연구(지원)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서 대구시 연구개발사업의 Plan-Do-See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성과 사례 공유·확산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V. 보고서 발간소식

경기연구개발지원단

2019년 경기도 과학기술통계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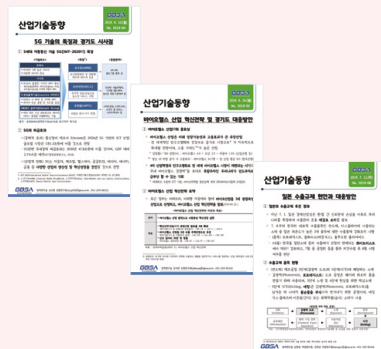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6월 「2019년 경기도 과학기술통계집」을 발간하였다. 매해 발간되는 본 통계집은 경기도 R&D 투자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의 과학기술현황으로 구성되며, △도 자체 R&D 투자, △중앙정부 R&D 투자의 도 유입현황, △도 R&D 활동 및 주요 산업통계 등이 담겨있다.

조사 결과, 경기도 자체 R&D 예산은 2019년 총 2,868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자세한 통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산업기술동향 발간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올해 상반기에 7건의 ‘산업 기술동향’을 발간·배포하였다. 산업기술동향은 2~3 페이지로 구성되며, 시의성 있는 현안에 대해 경기도 시사점과 대응방안 등을 다룬다. 현재까지 발간된 주제로는 △5G 기술, △바이오헬스 산업, △일본의 수출규제, △규제샌드박스 등이 있으며, 발간물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

Policy Focus 발간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상반기 내 2건의 ‘Policy Focus’을 발간·배포하였다. 지난 7월 발간된 ‘슬립테크 등장과 경기도 시사점’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슬립테크의 핵심기술 분야인 정보통신산업이 전국의 약 34.5%가 집중되어 있어 관련 기술적 잠재력이 높은 편이다. 이에 본 페이퍼는 슬립테크를 지역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사업(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8월 발간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여건과 시사점’에 따르면 도내에 국내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 기업의 60% 이상이 집적해 있다. 반도체 관련 업체와 연구기관이 밀집한 경기도에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센터를 통해 △공용설계 SW와 인력양성, △반도체 분야 은퇴자 활용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 I.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 II.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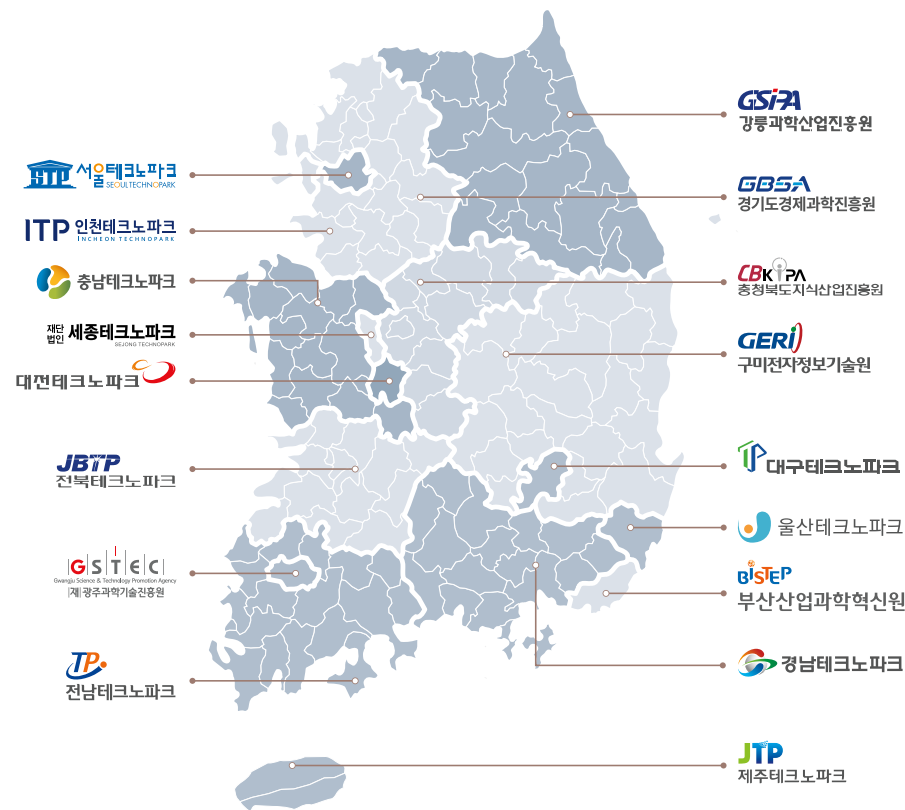
I.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R&D사업 투자 및 성과의 통계를 체계화하여 각 산·학·연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과제, 투자, 성과 등 각 지역의 R&D 분야에서 산출되는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지역 연구개발분야의 지식웨어하우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	강원도연구개발사업정보서비스	rnd.gsipa.or.kr
경기	경기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gtis.gbsa.or.kr
경남	경남창원과학기술정보서비스	gctis.gntp.or.kr
경북	경북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gstis.geri.re.kr
광주	광주과학기술정보시스템	gjtis.gjstec.or.kr
대구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dtis.re.kr
대전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	rnd.djtp.or.kr
부산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	btis.bistep.re.kr
서울	서울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세종	세종과학기술정보서비스(SJTIS)	sjtis.or.kr
울산	울산R&D성과물정보관리시스템	rnd.utp.or.kr
인천	인천R&D정보시스템	irds.itp.or.kr
제주	제주지역R&D통합관리시스템	-
전남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jntis.jnsp.re.kr
전북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rnd.jbtp.or.kr
충남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www.cnstis.net
충북	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researchweb.cbkipa.net

II.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033.650.3315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044.850.2120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634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052.219.8835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012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763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054.479.2212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33
광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062.609.0412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061.460.5231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053.757.3731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063.219.2282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042.930.3241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041.589.0144
부산	부산산업과학혁신원	051.795.5024	충북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043.210.0842
서울	서울테크노파크	02.944.6072			

06
R&D
성공사례

지역주도의 산학협력 R&D 사업
교육부 벤치마킹으로 국책사업화

부산연구개발지원단



06 R&D 성공사례



지역주도의 산학협력 R&D 사업 교육부 벤치마킹으로 국책사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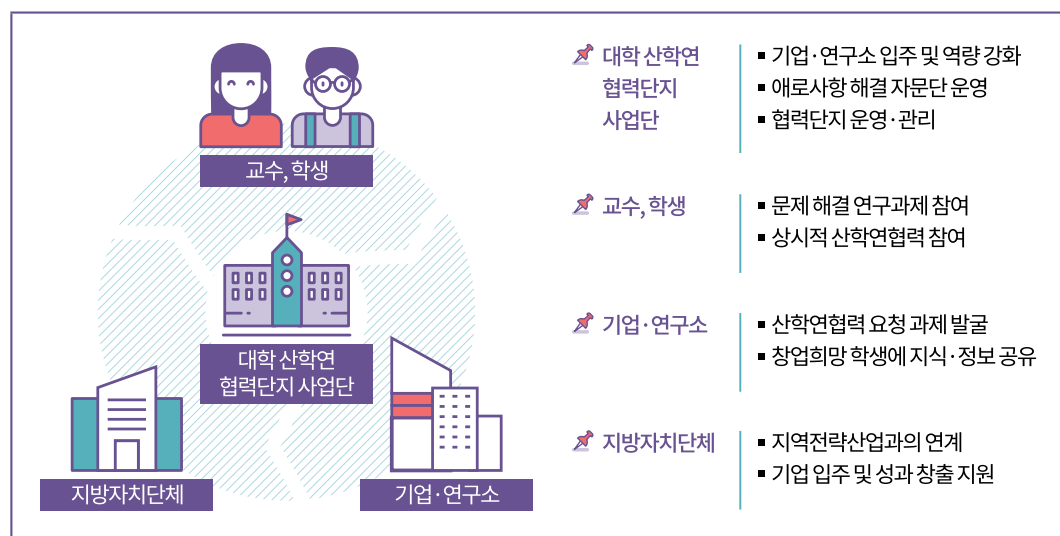
부산광역시가 지역 주도의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대학 산학연연구단지(URP¹⁾) 조성사업이 최근 결실을 맺었다. 대학 산학연연구단지 조성사업(이하 URP사업)은 대학의 유휴공간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미래산업 클러스터²⁾ 거점대학으로 육성하여 부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체계를 구축·촉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초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혁신성장동력으로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산시에서 추진한 URP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혁신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내 유휴부지와 시설 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 고급인력 수급에 유리한 도심지역의 입지를 원하며, 특히 초기창업 이후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도심형 입지공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가 처음으로 시도한 산학연협력사업인 URP사업이 대학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충분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고, 교육부가 부산의 URP사업을 대학의 우수인력·기술과 기업의 혁신역량 간 공간적 연계가 가능한 모델로 판단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추진 체계도



1) URP : University Research Park

2) 미래산업 클러스터: 해양플랜트, 수산식품, 에너지산업, ICT 메카트로닉스, 문화콘텐츠, 의생명과학

사업모델 벤치마킹 뿐만 아니라 URP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한 부경대학교가 교육부사업에 신청 하였으며,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의 사업 컨설팅 지원 및 다년간의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선정(23개 신청학교 중 2개 학교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부경대학교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기업·연구소 입주 및 교육 연계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산학연협력단지 초기 조성 예산(연 20억 원 내외, 3년) 및 제도 고도화 및 정착 예산(연 10억 원 내외, 2년)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지역이 지역혁신을 위해 주도적으로 시도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지역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산학연협력을 대학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SSUE
&
FOCUS